With KAU Webzine

Twenty-third steps

바라 온 것처럼, 바라보도록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활동
2023 퍼스널컬러와 골격이미지 특강 ····· 2
2023 멘토-멘티 디톡스 명상대회 ····· 3

2022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대 A사단” ····· 5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에쁠조” ····· 6
신소재공학과 “신과함께” ····· 7
소프트웨어학과 “소행성” ····· 8
스마트드론공학과 “스마트드론파이터” ····· 9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i인재들” ····· 10
공학계열 “항비티아이” ····· 11
항공교통물류학부 “꼬물교물” ····· 12
항공운항학과 “끼룩끼룩” ····· 13
경영학부 “항아리들” ····· 14
자유전공학부 “항키즈” ····· 15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햄릿 : 최종철 Shakespeare, William ····· 16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소프트웨어학과 “홍소학”팀 인터뷰 ····· 18

5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 25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6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 28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조선희] 저작권
[촬영지역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3 퍼스널컬러와 골격이미지 특강

새내기성공센터는 지난 5월 15일 17시부터 19시까지 나에게 어울리는 색 '퍼스널컬러와 골격이미지'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퍼스널 컬러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체 색과 조화를 이루어 생기있고 건강해 보이도록 하는 개개인의 선천적인 컬러다.

이번 퍼스널 컬러 특강에서는 따뜻함을 상징하는 WORM톤과 COOL톤 등 타입에 대한 사례를 들어 색상 샘플을 대조하며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퍼스널컬러 사계절별 이미지를 비교하며, 눈동자 색, 헤어컬러 등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WORM톤은 봄웜과 가을웜으로 나뉘고, COOL톤은 여름 COOL과 겨울 COOL로 나눠 연예인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해줘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았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으로 "특강 주제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여서 강의에 집중할수 있었으며 강의 내내 설명만 하기 보단 중간중간에 옆사람과 서로 어떤 톤인지, 얼굴형은 어떤지에 관하여 논의 할수 있어서 몰입이 잘되었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는 것의 중요성과, 첫인상 새기기의 필요성을 엮어 학생들에게 전달력 있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인상깊었다." 큰 만족도를 보였다.

새내기지원팀장은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처음 진행하는 특강이기에 퍼스널컬러 전문가인 박은하 대표를 특별히 초청하게 됐다. 대학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다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2023 멘토-멘티 디톡스 명상대회

항공대신문사 박주원 편집국장

17일 오후 5시 본교 운동장에서 '2023 멘토&멘티 디톡스 명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지원자는 총 20팀 100명으로 '멍 때리기'에 자신 있다는 팀들이 대거 참가했다. 대회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착석하여 10분 단위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우승 팀은 3회차와 4회차의 심박수 차이가 가장 적은 참가자가 있는 팀으로 선정됐다.

대회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학우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길을 가다가 낯선 광경에 한참을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었다.
대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멍 때리기'를 시작했다. 다만 대회장에 드리웠던 그늘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자 일부 참가자는 우산이나 겉옷으로 태양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대회 막바지에는 훼방꾼 역할로 풍물 동아리 '광대와 끼'가 나섰다. 그들이 꽹과리, 북, 장구 등을 이용해 학우들의 심박수를 뒤흔들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쉽사리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초반에 아쉽게 탈락한 김정훈 학우(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는 "20분 정도 참여하였는데, 짧았지만 편하게 멍 때릴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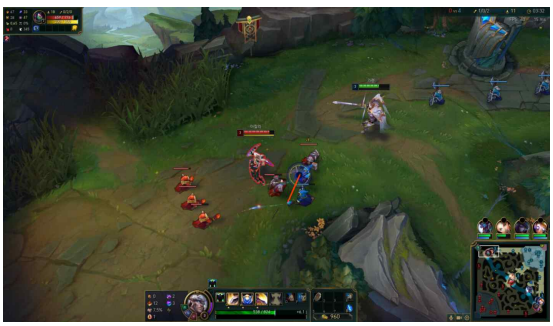
이번 대회 우승팀은 멍 때리기 우승자인 박성휘 학우(항공전자정보공학부 21학번)를 보유한 '성휘와 아이들' 팀에게 돌아갔다. 우승팀인 '성휘와 아이들'은 장학금 500,000원을 우승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명실상부 본교 멍 때리기 최강자인 박성휘 학우는 "멍 때리는 동안 열심히 풀 색깔을 비교 하였습니다" 라며 우승 비결을 밝혔다. 이외에도 '모전자전', '파이팅해야지', '항공대의 C앗들' 세 팀이 2,3,4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300,000원, 200,000원, 150,000원을 수상하였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대 A사단”

항공대 A사단은 A반인 멘티 모두가 남자인 것을 고려하여 지어진 팀명임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항공대 A사단

☆ 새내기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함.

☆ 새내기들이 대학을 다니며 좋은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참여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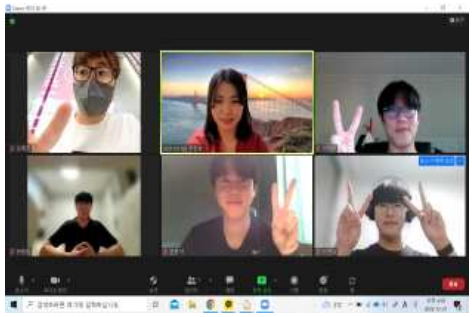
▫ 멘토 : 1년동안 후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잊고있었던 새내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멘티 : 멘토 멘티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멘토형의 태도를 보고 나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서먹서먹했지만 항우기 과설명회, 학교소개, 멘토형과의 식사, 당구게임, 체육대회를 통해 가까워졌다. 나도 2학년때는 멘토 멘티 활동을 하고 싶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에쁠조”

A반 친구들의 새내기 생활이 공부, 동아리, 학교 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A+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에쁠조

☆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해 올바른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줌
☆ 새내기들의 진로 탐색 및 목표 구체화

참여소감

▫ 멘토 :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신입생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질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 멘토 활동을 시작했던지라 많은 활동을 못 해 아쉬움도 남았지만 제 경험이 멘티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 멘티 : 1년 동안 멘티로 활동하면서 OT에서부터 마지막 멘토링 활동까지 배울 점도 많았고 경험한 것이 많았던 일 년이었습니다. 멘토님 도움으로 멘티 친구들과 매주 NALDA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고 설명하며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 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 멘토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소재공학과 “신과함께”

신(소재공학)과(에서)함께! 즉, 신소재공학과에서 멘토와 멘티가 만나 함께한다는 의미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신과함께

☆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적응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멘토뿐만 아니라 멘티들간의 친목

참여소감

▫ 멘토 : 1년 동안 멘토링을 통해 멘토라는 값진 경험을 해봤고, 멘티들에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재밌는 추억을쌓은 거 같아 뿌듯하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 거 같다.

▫ 멘티 : 처음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지 고민될 때마다 멘토가 조언 해줘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첫 학기에는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학과 “소행성”

소학의 행복한 성공시대!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소행성

☆ 후회 없는 새내기 생활 보내기
☆ 학교 생활 적응하고 학과 내에 인맥 만들기!

참여소감

▫ 멘토 : 코로나 이후에 학교 생활이 완전히 정상화된 첫 1년이었다. 금번 1년 만큼은 새내기들이 온전히 새내기로써 1년을 즐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고 내 1학년때가 생각나기도 했다. 나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멘티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 멘티 : 멘토링 조 동기들 중에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았습니다. 입학 전에도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배워봄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저보다 경험이 많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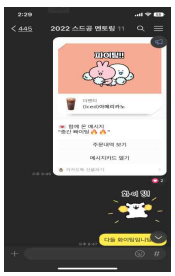
스마트드론공학과 “스마트드론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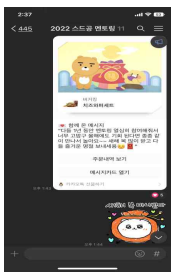
작년 유행한 프로그램인 ‘스트릿우먼파이터’에서 따온 이름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댄서들처럼 스마트드론공학과 학우들이 열정 넘치고 즐거운 새내기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팀명을 스마트드론파이터로 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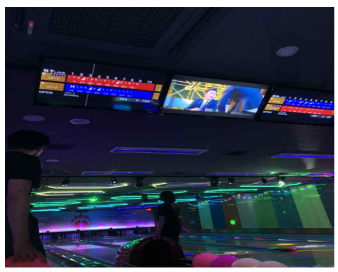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 스마트드론파이터

활동목적

☆ 새내기들에게 각종 학교생활 팁을 알려주며 새내기 생활을 보다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참여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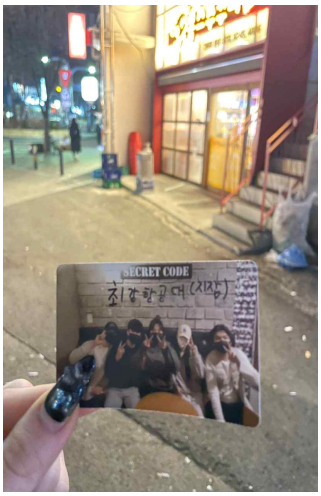
▫ 멘토 : 멘토링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새내기들이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찾으면서 나도 같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하였기에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멘티들에게 고마웠다.

▫ 멘티 : 학교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멘토님이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했다. 학교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인 면에서도 공부방법이나 과목에 따른 팁을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i인재들”

ai인재들은 ai자율주행공학과의 인재라는 뜻을 넘어서,
ai 업종의 미래 유망한 인재들만 쏙쏙 모아놨다는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ai인재들

☆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친목이 어려운 새내기들을 위해 친목 다짐, 학교 소개 등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노하우 전수

참여소감

▫ 멘토 :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쓰다보니 학기 초에 처음 만나고 다들 어색해서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힘들었던 때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문젠데 하하 (장난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만나자하고 간담회 듣자하고 여러 가지로 귀찮게 했을 텐데 다들 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것 같다.

▫ 멘티 : 2학기 때 중간에 합류 되어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행이었다.

공학계열 “항비티아이”

항공 + 엠비티 아이를 섞어 만든 이름으로 MBTI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게 되는 테스트인 것처럼 공학계열 멘토링인 우리 팀이 항공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과를 찾아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 항비티아이

활동목적

☆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

☆ 멘티들간의 친목을 유도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줌

참여소감

▫ 멘토 :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거의 모든 멘티들이 단톡방에도 활발히 대화하고 호응을 잘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타학과에 비해 공학계열 멘티들의 경우 학과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뻤던 멘토링이였던 것 같다.

▫ 멘티 : 사실 처음에는 멘토멘티 활동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없었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진로 결정, 학업에 큰 도움을 얻은 것 같아 좋았다.

항공교통물류학부 “꼬물교물”

꼬물이(새내기를 일컫는 말)와 항교물(항공교통물류학부의 줄임말)을 합친 말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꼬물교물

☆ 많은 선배와 동기들의 만남 도모
☆ 외부전문가와 지도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

참여소감

▫ 멘토 : 1학기에서는 멘티들 간의 친목에 집중을 하였다면 2학기에 다양한 동기들과 선배들과의 만남을 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명량운동회와 연합멘토링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준 멘티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 멘티 : 모든 것이 낯선 대학이라는 곳에서 빠르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이라 너무 고맙다 좋은 선배들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동기들도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단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 사이로도 크게 발전해 뜻 깊은 활동이었다.

항공운항학과 “끼룩끼룩”

‘끼룩끼룩’은 갈매기의 울음소리로 멀리 날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8월

12월

팀명

▫ 끼룩끼룩

활동목적

☆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한 노하우 전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와 멘티간의 친밀감 형성

참여소감

▫ 멘티 : 멘티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음.

▫ 멘티 : 군 조종사가 꿈인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좋았음.

▫ 멘티 : 멘토와 함께 학교 생활 계획도 세워보고 교과외 활동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멘티 :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음.

경영학부 “항아리들”

푸릇푸릇한 항공대 병아리들과 함께 한학기 멘토멘티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미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 항아리들

활동목적

☆ 항아리들을 위한 멘토의 경험담, 꿀팁 전수
☆ 2년간 학교에서 활동하며 어떤 활동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담 공유

참여소감

▫ 멘토 :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던 1학기를 넘어 2학기까지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 적응하는 단계였던 1학기와는 달리 2학기에는 멘토로서 가진 것들을 좀 더 공유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공유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멘티 : 올 한해 동안 3중 멘토링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이제 멘티가 아닌 멘토의 자리에서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해 멘토링 활동은 멘토가 되어보자는 뜻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항키즈”

항키즈팀은 항공대의 키즈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 항키즈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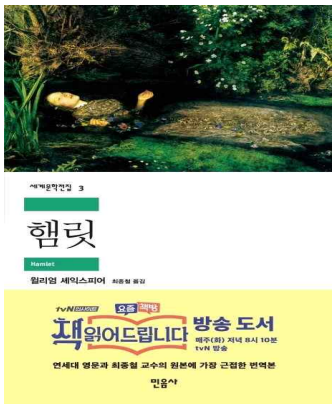
☆ 전공을 선택하는 2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 다양한 대면 활동을 통한 행복한 새내기 시절 만들기

참여소감

▫ 멘토 : 멘토가 4학년이다 보니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멘티들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활동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잘 받아주고 본인이 의견을 말해줘서 활동을 하는 내내 너무 편해서 멘티들에게 고마웠다.

▫ 멘티 : 학기 초에 코로나로 인해 새내기 배움터나 오티 등이 비대면 으로 전환하면서, 동기들과 친해지거나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아쉬웠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백미, 『햄릿』의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

르네상스 시대 극문학 『햄릿』의 오리지널 구성을 그대로 살린 정교함

셰익스피어는 기존에 구전되거나 주어진 이야기를 새로이 구성하고 지어내는 데 천재적 역량을 보여 준다. 그는 다른 작품들로부터 소재를 가져와 그것을 이어 붙이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당대에 맞는 주제와 해석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햄릿』 역시 원형이라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또한 배우로 연극판에 뛰어든 셰익스피어는 이후 본인이 소속된 극단의 주주이자 전속 작가로 격상하며 자신의 창작 기량을 맘껏 펼친 작가다. 따라서 그가 쓴 모든 극은 극단의 소유물이었기에 사실상 출판물로 나오기 힘든 여건이었다.

『햄릿』은 총 세 가지 판본이 현존하는데 첫 출판본은 1603년 1사절판으로, 1막 1장에 나오는 보초인 마셀러스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중심이 되어 극을 이끈다. 1604년에 출판된 2사절판은 앞서의 판본을 새로 고치고 증보한 것이며, 마지막 판본은 1623년에 셰익스피어의 동료 배우인 존 헤밍과 헨리 콘델이 극단에 보존된 자료를 토대로 펴낸 이절판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햄릿』의 원래 텍스트는 셰익스피어 본인이 펴낸 작품이 아니기에, 편집자와 번역자, 비평가 및 독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여건 때문일까. 『햄릿』은 현재까지도 연극과 뮤지컬 등에서 다양한 관점의 열린 해석을 동시대 독자들에게 선보이며 극문학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번으로 출간된 『햄릿』은 이러한 배경을 지닌 이 작품의 번역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번역자 최종철 교수는 아든 판의 셰익스피어 번역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으며,(뉴 케임브리지 판과 리버사이드 판도 참조하였다.) 햄릿의 가장 하이라이트 대사인 “To be, or not to be”를 “있음이냐, 없음이냐”로 번역했다. 이는 『햄릿』이 인간의 욕망을 추종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햄릿의 비극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복수라는 행위가 인간의 존재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과 본질을 추구하는 극임을 나타낸다.

“셰익스피어는 당시 유행했던 복수극을 염두에 두고 「햄릿」을 썼지만, 이 비극은 단순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수라는 행위가 인간의 존재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행위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 결과 존재의 모든 영역이 이 비극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 「작품 해설」 중에서

햄릿에게 삶은 곧 죽음, 죽음은 곧 삶
햄릿의 갈등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진실을 찾아 나가는 여정

『햄릿』은 부왕의 원수를 갚아 국가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왕자 햄릿의 고뇌를 담은 작품이다. 사실 햄릿만큼 작품의 성격을 특징짓는 인물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햄릿 없는 『햄릿』은 상상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햄릿』을

읽고 보는 이유도 햄릿과 만나기 위해서다. 햄릿이라는 인물에게는 극단적인 행동을 지연하거나, - 클로디어스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를 살려 주는 - 실천하는 - 휘장 뒤에 숨어 있던 폴로니어스를 클로디어스라 생각하고 아무런 주저 없이 찔러 죽이는 - 모습이 공존한다. 햄릿은 인간의 본질이 그저 존재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행함에 있는 것인지를 질문한다. 또한 입바른 말만 하는 어릿광대 요릭처럼 인간 존재의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바로잡으려 애썼다. 햄릿이 탄식하며 내뱉는 다음의 대사처럼.

"쉬어라 쉬어, 불안한 혼령아. 그럼,
내 모든 사랑으로 자네들에게 날 맡기네.
그리고 햄릿처럼 가난한 사람이
사랑과 우정을 표할 길은, 신이 원하면,
부족하진 않을 걸세. 같이 들어가지.
또한 항상 손가락을 입술에, 부탁이야.
뒤틀린 세월. 아, 저주스런 낭패로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내가 태어나다니.
아니, 자, 우리 같이 가세."
—「1막 5장」 중에서

햄릿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기지와 재담,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등으로 인간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여 보여 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햄릿의 그러한 능력은 항상 양극화되어 나타나며, 이 모순이 서로 충돌하며 생기는 대립과 갈등이 그의 존재 양식이 된다. 이런 점에서 햄릿은 인간이 지닌 결함을 반영한다.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와 행위는 있음과 없음, 선과 악, 허구와 실재와 같은 이분법적 사물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 선과 악으로 양분된 덴마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회의하며 갈등하던 햄릿은 이후 5막 2장에서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는 듯 보인다. 우리는 극 후반부에서 햄릿이 이분법의 세계에 속한 인물이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진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보편적 인간이 그러하듯, 존재의 양면성 때문에 번민하고 죽어 간다.

셰익스피어는 어째서 햄릿 같은 '생각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전형을 묘사한 것일까? 그는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클로디어스가 자기 형인 선왕 햄릿을 죽임으로써 극 밖에서 시작된 형제간의 시기와 음모, 질투와 살인은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행위와 연결된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도 못 되어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에게 보이는 햄릿의 미움과 사랑은, 인류가 가정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다.

여기에 이 극에는 햄릿과 오필리아라는 두 청춘남녀의 비극적인 사랑까지 포함된다. 『햄릿』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개인과 가족과 국가, 심지어 우주적 차원까지 의미화할 만큼 포괄적이다. 그 외에도 이 비극은 행동과 행동의 지연, 가짜와 진짜 광기, 허구와 실재, 이성과 열정 등의 상반되는 개념과 가치들을 대립시킴으로써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햄릿에게 삶은 곧 죽음, 죽음은 곧 삶과 같았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불안, 허무와 사투를 벌인 자였다. 따라서 햄릿의 갈등은 그저 복수로 끝나고 마는 욕망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걸고 삶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었다.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홍소학”팀
홍지승멘토, 권아영멘티, 강민재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학년도 1학기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프트웨어학과 “홍소학”팀의 멘토링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Q1. 2023학년도 3중멘토링에 참여하신 멘토, 멘티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홍지승 멘토 :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홍지승입니다. 3중 멘토링에서 멘토를 담당하고 있고, 멘티 친구들과의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내기 성공센터 프로그램도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찾아서 공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권아영 멘티 : 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권아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멘토멘티 활동에서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고, 주로 멘토와 멘티끼리 함께하는 활동의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민재 멘티 :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강민재 이라고 합니다. 저는 멘토멘티 활동에서 주로 총무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3중멘토링에 참여한 계기와 멘토에게 3중멘토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홍지승 멘토 : 제가 신입생때를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보니 3중멘토링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멘토와는 친해졌지만 같은 멘티들과 더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고,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멘토를 하게 된다면 멘티 친구들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친구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2023 1학기 멘토가 기획한 활동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홍지승 멘토 : 제가 생각했던 활동들은 다들 어색할 때 보드게임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친해지고 날이 풀려서 따뜻해지면 한강에 다 같이 놀러가서 맥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보니 축구나 야구와 같은 종목들을 단체 관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Q4. 신입생 멘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권아영 멘티 : 신입생이기도 하고 대학교를 이번에 처음 오다 보니 새로운 학점체계 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과목별 학점을 잘 따기 위한 고민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강민재 멘티 :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코딩입문이라는 과목을 통해 파이썬을 처음으로 배우고 실행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렵게 느껴져 잘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Q5.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한 것이나 목표가 있었다면?

홍지승 멘토 : 3중멘토링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는 제가 멘토로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어떤 활동을 해야 친구들이 재미있게 잘 참여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고, 계획을 하면서 친구들이 제가 계획한 활동들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목표로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학업에 치이기 보다는 잠시 쉬고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 위주로 넣었지만, 이제는 멘티 친구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아영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처음보는 같은 과의 선배님과 많은 활동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대학 생활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 기대 되었습니다. 후배와 선배가 친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해서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겠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강민재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긴장도 되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같이 활동하는 것이 대해 기대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 그리고 선배와 친해지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Q6. 흥미진진 MBTI 해석 특강에 참석하게 된 계기와 느낀점이 있다면?

홍지승 멘토 : 요즘 MBTI로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MBTI를 통해 이래서 다르다고 개개인을 이해해주고는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중멘토링의 구성원들이 각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이 다를 것이

고,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MBTI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한 3중 멘토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MBTI 해석 특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느낀점으로는 해석 특강 동안 각자의 유형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과 각 유형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멘토링 구성원들 각자의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권아영 멘티 : 대학생활에서 친구들과 처음 친해질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의 MBTI를 물어보며 친해지고, MBTI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MBTI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제가 알고있는 MBTI의 정보들 이외에도 새로운 정보를 더 알아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하면서 원래는 저의 MBTI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저와 비슷하거나 다른 새로운 유형들을 비교해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강민재 멘티 : 저는 평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MBTI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MBTI 특강이 있다고 들었을 때 바로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MBTI 특강을 들으며 MBTI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Q7. 외부전문가멘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계신 동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홍지승 멘토 : 멘티 친구들이 가장 원했던 전문가 멘토님은 네이버, 삼성전자에 재직중이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비교적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 원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멘티들이 말해주니, 저는 두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현재 선택한 전문가 멘토님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권아영 멘티 : 저는 맨 처음에 재직중인 회사를 보고 대기업에 계신 네이버 또는 삼성전자 멘토님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기업에 계시는 만큼 멘토님의 경험과 조언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재 멘티 : 지금 선택한 멘토님이 다른 전문가 멘토님들에 비해서 최근에 졸업하셔서 대학생활에 관해서 질문하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더 지금 학교 생활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8. 그동안 멘토에게 또는 멘티에게 배운점이나 닮고 싶은점이 있었나요 ?

홍지승 멘토 :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활발한 모습을 닮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학업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다른 여가 시간이나 쉴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기운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멘티들의 활발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권아영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멘토님께서 학교의 일을 병행하시면서도 저희 멘티들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책임감 있게 멘토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닮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재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할 때 말고도 평소에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을 하였을 때 너무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주변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9.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이라면'이것'하나 만큼은 꼭! 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다면?

홍지승 멘토 : 저는 운동을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 주변 소프트웨어학과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과 특성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세도 틀어지고 건강도 잘 챙기지 못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운동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권아영 멘티 :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이라면 코딩도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딩도장이란 코딩을 처음하는 입문자들에게 유용한 사이트로 코딩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재학하며 코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 코딩도장 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선행학습을 하거나 복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재 멘티 :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이라면 백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코딩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이럴 때 백준은 공부하기에도 좋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10. 3중멘토링을 참여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홍지승 멘토 : 3중멘토링을 하면서 좀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지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멘티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별 탈이 없이 잘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씩 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변화된 것 같습니다.

권아영 멘티 : 3중멘토링에서 멘토멘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래는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외부 행사들에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더 많은 외부적 활동을 하게되어 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민재 멘티 : 3중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활동을 하면서 낯을 가리는 성격이 나아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학교에 많은 활동을 하고 알아가며 학교에 대한 정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With KAU 5월
웹진 퀴즈 EVENT

Q. 우리대학교에서는 학부(과) 및 세부전공별 학생 진로 로드맵인 Tri인재路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중 Tri 인재로가 아닌것은 ?

① 항공전문 인재路
② 융합창의 인재路
③ 학문연구 인재路
④ 글로벌소통 인재路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5.24 ~ 2023.05.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4호

With KAU 4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이수학점 12학점,
3개 까지 이수가능

2023****77 이○영
2021****51 이○재
2021****76 이○연
2023****57 성○비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새내기성공센터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Plan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23 Plan	24 Plan
25 Plan	26 Plan	27 Plan	28	29	30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2023-1 외부전문가간담회 결과제출 마감

멘토-멘티 학부(과)별 Open Lab 행사운영

KAU SPACE 핵심역량설계공모전 결과발표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With Korea Aerospace University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